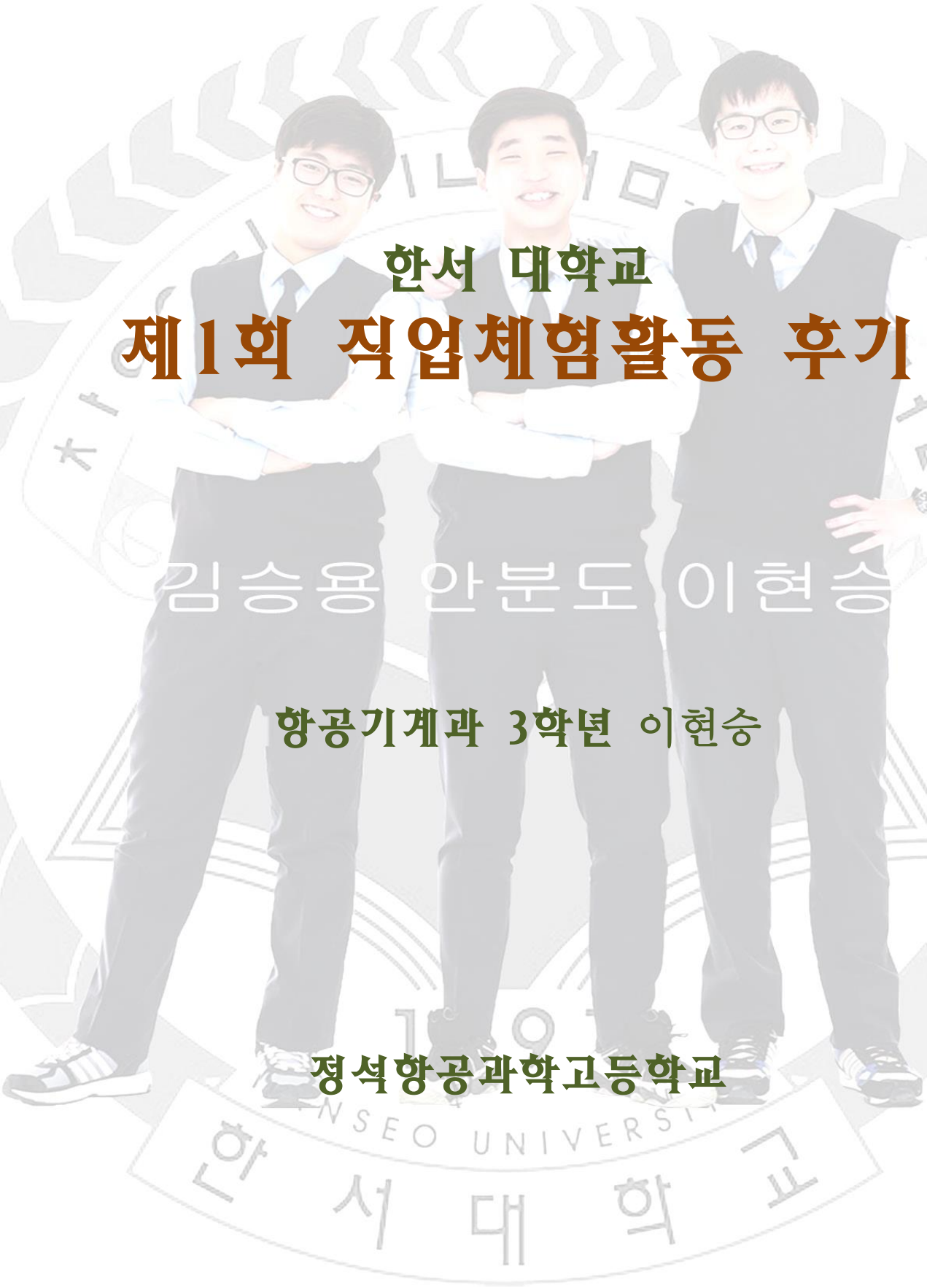


한서 대학교

제1회 직업체험활동 후기

항공기계과 3학년 이현승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한서대학교
제1회 직업 체험활동 후기

한서대학교에 가다!

5월20일 금요일 한서대학교 직업체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13일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확인한 후 학교에 체ㅡㅇㅡ험활동신청서를 제출하러 담임선생님께 갔더니 선생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참가자 명단에 있다는 것을 알 고계셨습니다. 우리학교는 항공과학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한서대학교의 직업체험같은 좋은 기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셨으며 좋은 체험 즐겁게 참가하고 돌아오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교통상태를 알수가 없어서 일찍 출발하기로 생각하고 한서대학교 해미캠퍼스를 향하였습니다. 해매캠퍼스는 처음 가보는 곳이라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였습니다.
입구에 직업체험안내약도를 보며 본관을 찾아간 시간은 예정시간보다 2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여 캠퍼스 구경도 하고 한서대학교 교가도 보며 '17 학번'이 되어 이곳으로 입학식 하러 오는 꿈도 꾸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오직 한서대학교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코엑스에서 있었던 수시박람회도 작년여름 한서대 태안캠퍼스 방문,2016년 04월03일 한서대 항공운항과에서 개최한 한서대학교 진로체험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한서인'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해미캠퍼스에서 태안캠퍼스로 이동한 후 '항공종사자체험'은 1조당 5명의학생으로 비행시뮬레이션과 관제탑 관제 시뮬레이션은 전공자 선배들이 설명해주는 등 전문학과 선배들의 따뜻한 배려와 적극적 설명으로 실질적 경험을 하는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Flight Simulation

모의 비행 체험

직업체험 참가자 명단에 이름이 있는 것을 본 순간부터 모의비행체험에 관한 기대가 가장 컸 습니다.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에 플라이트시뮬레이션이 있어 조종스틱으로 조종하여 보았지만 한서대학교에서의 비행체험은 실제 비행과 80%이상 동일하다고 합니다.

Take off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이 이륙할 때 스크린을 보면 어지러웠지만 직접 조종석에 앉아 엔진의 출력을 높이고 서서히 속력이 증가하며 날개가 양력에 의해 상승 할 수 있도록 조종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지만 직접 경험하려니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이륙을 할 수 있었습니다.

Cruising, 과정에서 선배가 스크린에 상영되는 구름을 따라 활주하라 가르쳐 주어 방향키를 이용해 구름을 향하여 순항을 하였습니다. 하늘에 떠서 바라보는 구름은 지상에서 보는 기분과는 너무도 다르고 흥분되었습니다. 구름에 다가간 후 선배가 옆에서 방향키를 왼쪽으로 돌리고 승강키를 아래로 내려주었습니다.

Landing과정은 활주로의 위치를 가르쳐 주며 직접 착륙할 수 있겠니? 하며 물어봐 주었고 비행에 욕심이 많아 직접 착륙을 시도하였습니다. 추진엔진을 끄고 오직 무동력으로 기류를 타고 한 바퀴를 돌아 착륙 장소를 잡은 후 착륙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쉽게 착륙하지 못하고 비행기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선배가 옆에서 써포트해 주어서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simulation을 이용한 모의 비행이었지만 느낌과 흥분은 기장이 되어 지구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서대학교

제1회 직업 체험활동 후기

활주로와 격납고

오후 체험 시간 전에 선배와 활주로를 걸으며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첨단 인명구조 119비행기도 있었고 과거 블랙이글이 사용하였던 비행기도 보았습니다.
격납고 안에서는 세스나 비행기를 정비 중이었으며 또 한 대의 세스나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엔진 소리를 들으며 정비중인 정비사님은 소리 만들어도 엔진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항공과학고 학생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미래의 꿈입니다.
그 곳에서 가슴속 깊이 각인되어 있던 비행기, 어려서 항공인의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무동력 항공기'를 보았습니다. 물론 크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같은 원리로 비행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동체의 모습은 비슷했습니다. 아시아나의 외국인 기장이 직접 나무를 손으로 깎아 만든 무동력비행기를 한강 둔치에서 날리는 모습을 보며 항공인의 꿈을 키워왔는데 그 비행기를 한서대학교 격납고에서 만난 순간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격납고 안에 있는 모든 비행기에는 HL마크가 모두 있었습니다.
궁금하여 선배에게 질문하였더니 HL은 한국을 가르치는 고유 식별마크이며
모든 나라의 비행기에는 각각의 고유 식별마크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넓고 긴 활주로를 천천히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행운이었으며 항공인 이 되어 꼭 다시 걷고 싶은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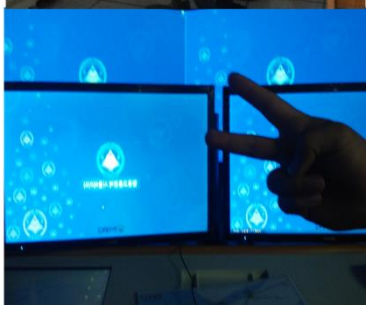
그렇게 긴 활주로를 걸어 점심을 먹기 위하여 우리 조원들과 선배는 천천히 그리고 여유 있게 이동하였습니다.

항공 교통 관제 모의체험

항공관제 시뮬레이션 체험

마직 막으로 우리가 향한곳은 비행장에 있는 항공관제 시뮬레이션 실이었습니다.
항공관제 체험은 두 팀으로 나누어져 관제 팀과 조종 팀이 서로 교신하는 체험이었습니다.
관제사와 조종사의 교신은 항공기의 이착륙이 꼭 필요한 내용으로 어느 한쪽의 실수도 허용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신내용이 칠판에 쓰여 있다 비행허가를 내달라는 조종사의 요청과 활주로 33/15를 이용하라는 관제사의 교신 조종사는 관제사의 33/15를 이용허가를 따라 비행기를 이동하고 또 다시 이륙허가를 관제사에게 요구합니다.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바람의 방향을 체크하여 주며 Take-off를 허가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직접 헤드셋을 착용하고 roll-play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조종사의 역할을 하며 관제사와 통신을 할 때 정말 내가 조종석에서 비행을 대기하는 조송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끝임 없이 질문을 하였음에도 선배는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최선을 다하여 답을 해 주었으며 궁금한 것이 많았던 우리에게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제체험은 비행체험과는 다른 흥미를 가질 수 있었으며 새로운 경험으로 항공인 으로 한걸음 다가선 기분이었습니다.



한서대학교

제1회 직업 체험활동 후기

직업 체험을 맞치며...

항공인의 꿈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비행기, 무인항공기를 끝임 없이 따라다녔으며 '비상'팀에서 '로봇항공대회'와 '신비차'대회를 준비하며 또 다른 무인항공기, 조종사 없이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할 수 있고 지상과 공중을 자유로이 활주할 수 있는 비행기를 제작하는 그날을 위하여 한서대학교 '17' 학번으로 항공학부에 꼭 입학하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저는 정석학공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이 현 승 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바로가기: